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 지수 126p, 중고선가 지수 86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6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6p(-1p, WoW)를 기록함.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Everest Korea Finance Advisory로부터 30만DWT급 VLCC 1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8월까지라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Centrofin Management로부터 15.7만DWT급 탱커 3+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1월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 Total and TechnipFMC start hunt for Mozambique LNG personnel and offshore vessels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와 영국의 해양건설업체 TechnipFMC가 Mozambique LNG 프로젝트와 Golfinho-Atum Subsea 프로젝트를 위한 발주 문의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문의 내용은 1척의 module carrier와 3척의 barge선과 3척의 tug라고 알려짐. (Upstream)

### Hoegh LNG reveals plans for move into ammonia and hydrogen shipping

노르웨이의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업체인 Hoegh LNG가 암모니아와 수소에 대한 해상운송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됨.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는 기존의 선박을 활용해서 암모니아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TradeWinds)

### Posco gears up for Myanmar drilling with gas find appraisal on cards

포스코가 올해 초 발견한 Mahar 심해 가스전에서 새로운 시추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포스코는 Block A-3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와 시추 판단을 위해 1,0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참고로 Block A-3는 Shwe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보도됨. (Upstream)

### 컨테이너선 선주들 발길 조선소로

컨테이너선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선박 과잉에 시달렸으나 이제 수급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보도됨.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제 신조선 발주를 위한 선주들의 발길이 조선소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됨. 10월 전세계 수주잔고는 기존 선대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이 비율을 8%선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MSC 선대 규모, 곧 세계 1위

MSC가 머지않아 세계 1위 컨테이너선 선사에 오를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지금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Maersk는 선대를 줄여온 반면 MSC는 계속해서 선대를 확충하는 중이라고 보도됨. 9월 초 Maersk의 투입 선대는 4,076,587TEU이며 orderbook은 31,446TEU인데 비해 MSC는 3,816,321TEU에 orderbook 115,000TEU라고 보도됨. (선박뉴스)